

오르면 고점 매도 기회?

16 January 2014

● 전일 주요 동향

- ✓ **美 증시 상승.**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지속.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종합 비즈니스지수가 20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또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美 Dow +0.66%.**
- ✓ **中 증시 하락.** 유동성 우려 때문인 듯. 중국의 12월 신규 대출이 전망치를 하회하고 통화 공급량 성장세도 약화되면서 유동성 우려 부각. 이로 인해 중국공상은행이 2.3% 빠지며,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 **中 상해종합지수 -0.17%.**
- ✓ **美 달러화, 주요통화대비 강세.** 개선된 경제지표 덕분. 예상보다 강력한 뉴욕주 제조업지수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랠리를 펼침. **달러/유로 1.3679→1.3605, -0.54%, 엔/달러 104.22→104.56, +0.33%.**
- ✓ **유가(WTI) 상승.** 재고 감소에 힘입어 상승. 미국의 원유재고가 7주째 급감하며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가능성 재료를 압도해 유가 지지. 그러나 브렌트유는 이란과 리비아의 원유수출 증가 경계감에 상승폭 제한. 또 난방유와 디젤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가 증가 예상과 달리 감소하며 초 저유황 디젤(ULSD) 선물가가 1.5% 오르며 1주일래 최고치를 기록다. 그러나 휘발유 재고는 증가세를 이어감. **WTI +1.58% \$94.17, Brent +0.61% \$107.00.**

오르면 고점 매도 기회?

다시 상승했다. 전일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0.74% 상승한 \$7,352 기록. 하지만, 계속 오를지는 의문이다. 딱히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전일 상승을 이끈건 미국이다. 미국 지표들이 개선되며, 경기회복을 지지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연준의 통화부양책 축소 전망이 약화되며 당분간 제로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이 더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중국부터 상승을 차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음력설을 앞두고 중국내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하락흐름이 자칫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alyst 윤성철

02.788.7134

basemetal@hyundaifutures.com

일단,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올해 동정광 공급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가능성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미국. 지표만 놓고 보면 장미빛 미래만 보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FOMC는 그렇다고 쳐도, 오는 2월 7일에 만료되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기술적인 저항선마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주간 캔들차트로 봤을 때, 가격이 60주 이평선 위에 안착하긴 힘들 것 같다. 만약 가격이 일시적으로 \$7,400선을 돌파한다면 고점 매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림 1] 주간캔들차트로 본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전기동 예상레인지: \$7,200~7,500.

Gold

이틀째 하락. 미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 랠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인 듯.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계절 조정을 반영한 12월 PPI가 0.4% 상승,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또 뉴욕주의 1월 제조업지수는 신규주문 급증에 힘입어 20개월 최고 수준을 기록. BoA의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뉴욕증시가 이틀째 강세를 보인 것도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감소시킴. 또한, 세계은행이 글로벌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증시를 지지함.

금 현물은 뉴욕거래 후반 0.4% 내린 온스당 1240.15달러. 금은 지난 13일 온스당 1254.05달러까지 전진, 12월 12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음.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2월 인도분은 온스당 1238.3달러에 마감돼 전일 종가 1245.40달러에 비해 7.1달러 하락.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부양책 축소 작업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화되며 최근 금을 지지. 금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3% 상승.

INTL FC스톤의 금속 분석가 에드워드 마이어는 "그러나 우리는 금이 앞으로 몇주간, 특히 월말 연준 정책회의가 다가오면서 이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종가	Change(\$)	%
전기동	7,294.5	7,360.0	7,250.0	7,352.0	54.8	0.74%
알루미늄	1,761.0	1,792.0	1,753.5	1,782.8	21.8	1.22%
아연	2,069.5	2,087.0	2,045.5	2,082.3	14.0	0.67%
납	2,184.0	2,218.0	2,159.0	2,212.0	26.5	1.20%
주석	22,180.0	22,300.0	22,075.0	22,150.0	40.0	0.18%
니켈	14,334.0	14,622.0	14,224.0	14,519.0	171.0	1.18%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 (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336,250	DOWN	1,525	136,625	199,625	0	1,525
알루미늄	5,453,525	DOWN	7,800	2,988,100	2,465,425	650	8,450
아연	892,300	DOWN	4,425	519,200	373,100	0	4,425
납	211,500	DOWN	500	165,725	45,775	0	500
주석	9,580	DOWN	20	5,835	3,745	0	20
니켈	261,900	UP	528	159,060	102,840	816	288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LBMA Lend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1M	2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238	1,236	0.00	0.01	1,241	1,241	1,241	1.70
SILVER	2,009	2,027	0.54	0.55	20	20	20	0.04
PLATINUM	1,415	1,416	0.00	0.00	1,433	1,433	1,431	2.50
PALLADIUM	734	734	0.00	0.00	746	746	743	-1.35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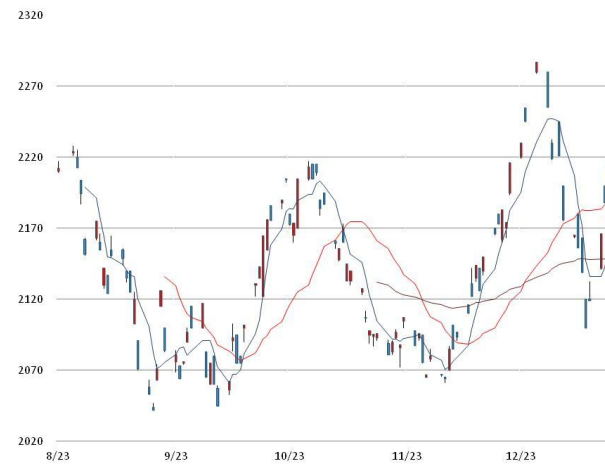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 거래관련 문의(현대선물 글로벌 파생팀, E-mail: fno@hyundaifutures.com)

<u>Name</u>	<u>Phone No.</u>	<u>E-mail address</u>
유승헌	822-788-7145	eric@hyundaifutures.com
천승혁	822-788-7132	shchun@hyundaifutures.com
김재준	822-788-7188	jun@hyundaifutures.com
서미희	822-788-7053	tjal02@hyundaifutures.com
신금철	822-788-7139	newgoldfe@hyundaifutures.com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